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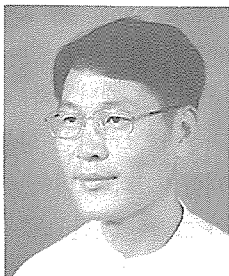
1999년 국제 신경손상 최신발전 학술회의

● 일시 : 1999년 11월 20~23일 ● 장소 : 타이완 타이베이시

지난 11월 20일부터
타이완의 타이베이에서 열린 1999년
국제 신경손상 최신발전 학술회의는 전 세계 35개국에서
신경손상에 관심이 있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학자 등 4백명에 가까운
과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신경손상의 예방과 조절'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특강과 토론(symposium), 그리고 자유연제와 포스터를
포함하여 모두 2백5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필자는 토론의 초청연자로
강의를 하고, 학회연회에서는 인사말을 발표하고 공동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제 신경손상 최신발전
학술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ent Advances in Neurotraumatology ; ICRAN)는 세계신경외과 학회 연합(WFNS)의 신경손상 위원회가 후원하는 세계적인 학술모임으로 신경손상, 곧 머리와 뇌, 그리고 척추와 척수(등골)의 손상에 관한 실질적인 임상정보와 기초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이다.

안전모로 두부외상 33% 줄여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외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국가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특히 40세 미만에서는 교통사고가 가장 흔한 사망의 원인이다. 99년도 한해에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66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두부외상은 대부분 젊은이가 피해자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두부외상의 발생빈도와 원인분포, 그리고 사망률과 장애율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



李景錫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



초청연사를 위한 연회석상에서 대회장 (Congress President)을 맡은 Chiu교수 부부와 함께 (왼쪽이 일본의 Tsubokawa 교수, 오른쪽은 캐나다의 Tator교수)

료가 있어야 한다. 두부외상의 원인은 나라마다 매우 다르다. 예를 들면 영국은 추락/실족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러시아는 폭발물사고와 지진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가용 차량이 적어 교통사고의 비중은 상당히 낮았다.

미국에서는 총기사고가 큰 원인 중 하나이고, 아프리카에서는 내전 (civilian war)과 함께 거리의 전쟁 (road war)이라 할 수 있는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했다.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치료방법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위험요인을 찾아서 이를 사전에 예방함이 중요하고, 다양한 안전장치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러한 안전장치를 꼭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시행함이 중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신경손상 등록사업 또는 두부외상 등록사업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내세울만한 역학자료가 없음이 유감이었다. 한편 대만에

서는 두부외상의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1997년 안전모 착용법을 시행한 이후 두부외상 발생률이 33%나 감소했다고 한다. 한 사람의 신경외과 의사가 엄청난 노력을 하여 매우 어려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동안 그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정책 하나가 수천명을 보호할 수가 있다. 정말 예방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 느낄 수 있었고,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필자, 만성 경막하혈종 규명

토론 (symposium)은 4개방에서 진행되었는데, 필자는 두번째 방에 참관하였다. 토론 주제는 '신경손상의 진단과 영상'이었다. 그동안 발표되었던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한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독일의 Firsching은 일차 뇌간 손상이 매우 드물거나 없다는 과

거의 생각이 틀린 것이며, 상당히 흔하고, 상부 뇌간 손상은 예후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필자는 처음 발표된 지 1백50년이 지나도록 밝혀내지 못했던 만성 경막하혈종의 기원을 밝히고 비슷한 경막하 병소들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발표하였다.

학회 들쭉날 열린 연회에서는 중국의 오페라인 경극과 함께 다양하고 훌륭한 공연들이 진기한 고급 음식들과 함께 제공되었고, 이 자리에서 2분간 필자가 인사말을 발표하였다. "지진이 라는 재난이 있었지만 훌륭한 학회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준비한 학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신경손상은 매우 흔한 재난중의 하나이며,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재난을 조절하고 줄이며 손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학회를 통해 지식을 얻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망과 도전

을 배우자”는 취지의 인사말이었는데, 인사말을 끝내고 자리에 돌아오니 옆 자리에 앉았던 스페인 의사와 일본에서 온 Katayama교수가 좋은 인사말이었다고 칭찬해 주었다.

셋째날의 본회의는 표준진료지침(Guideline)이 주제였다. 미국에서 개발한 진료지침은 지나치게 전향적 무작위 비교 조사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보다는 해 봐야 소용없다는 지침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유럽 기준을 새로 만들게 되었고, 유럽 진료지침은 대가의 경험과 견해도 지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증거바탕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EBM)은 학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며, 진료지침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이 지침이 임상적 사고를 억압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자극해야 한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Servadei는 진료지침은 그 지방의 의료 여건과 사회적 여건은 물론 문화적 여건까지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본도 나름대로 진료지침을 개발중이라고 하였다. 결국 나라마다 다른 진료지침을 개발했거나 하고 있고, 중증과 중등도 두부외상만이 아니라 경도 두부외상이나 소아 또는 노인 두부외상의 진료지침 등 진료지침 개발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진료지침을 개발하면 진료지침이 지역마다 다 다르게 되고, 서로 다른 지침들 때문에 또 다른 표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말하자면 너무 다양하다보

면 기준이 흔들리게 되지만, 너무 기준에만 집착하면 다양성을 잃게 되고, 그 다양성을 차단하면 발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뛰어난 대가 한사람이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그 업적이 새로운 학설을 짚을 수 없게 한다. 한편 미국의 Chesnut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다양한 치료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것을 표준화하려고 미국의 표준진료지침이 개발되었다는 배경설명과 함께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사실 결정적인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그럴듯한 추론과 왜곡 또는 과장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환자의 기대를 이용해 첨단의료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치료방법들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할 일이라 본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입증된 치료방법이 없다고 아무런 처치나 치료를 받지 않을 수는 없으며, 이럴 때에는 결국 대가의 경험이나 견해 또는 가설이라도 매달리지 않을 수 없음이 사실이다.

전기 자극 식물환자 치료 효과

이번 학술대회에서 흥미있는 논문으로는 지속적 식물상태인 환자의 의식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에 대한 발표와 신경재생에 관한 발표들이었다. 일본의 Kanno교수와 Tsubokawa교수는 각각 척수나 뇌를 전기로 자극하여 지속적 식물상태였던 환자를 깨웠다고 보고하였다. 물론 모든 환자에서 다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속수무책인 질병을 어떻든 약 40%에서 효과

를 보았다고 하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척수손상의 재생’에 대한 발표는 기대는 컸지만 아쉬움이 많았다. 미국의 Green교수는 크게 두 방향의 연구가 진행중인데, 하나는 신경이식을 통한 척수의 재생을 위한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마비된 척수에 주기적인 전기자극을 주어 근육수축을 유발하고 이를 이용해 기능회복을 얻으려는 노력이라고 하였다. 절단된 신경세포를 말초신경을 이식하여 연결하려는 노력은 일부 부분적으로 성공하기도 하였으나, 실험실에서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걸음마 단계이며, 이러한 기술을 현실에 옮겨 이용하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는 이야기다.

넷째날의 본회의는 신경재활이 주제였다. 독일의 von Wild교수는 그동안의 의학이 생명유지가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기능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근위축이 생기기 전에 재활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참석하지 못한 토론, 자유연제, 그리고 포스터 발표는 생략할 수밖에 없으나, 최근의 학술지를 훑어보면 대강의 추세나 결과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오후에는 공식관광으로 고궁 박물관과 양명산 공원 방문이 이어졌다. 아시아 국가들 중 처음 방문하는 대만에서 필자는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라고 여겼던 것들을 대만에서 거의 모두 볼 수 있었다. 한국이 과연 중국이나 일본과 어떻게 다르며, 우리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또는 독일의 문화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까 궁금했다. ①